

최형우, 1천500타점... '이승엽 넘었다'

한화戰 투런포 작렬, 전인미답 대기록...이제 '그'가 가는 길은 KBO리그 역사가 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베테랑 해결사' 최형우가 '국민 타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을 제치고 KBO리그 최초로 1천500타점 고지에 올랐다.

최형우는 2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의 원정 경기에 4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팀이 0-1로 끌려가던 4회 1사 1루에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이로써 1천500타점째를 기록한 최형우는 이 부문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2002년 2차 6라운드 전체 48순위위로 삼성에 지명된 최형우는 2008년 4월1일 잠실 LG전에서 데뷔 첫 타점을 기록했다.

2013년 500타점, 2017년 1000타점 돌파에 성공, 데뷔 20시즌 만에 리그에서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통산 1500타점 고지를 등성했다.

역대급 '타점 기계'인 만큼 관련 기록도 다양하다. 본격적으로 활약한 2008년 이후로 지난 2022년까지 15시즌 동안 빠짐없이 50타점 이상 기록했다.



2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4회초 1사 1루 때 KIA 최형우가 2점 홈런을 쳐낸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4-2018년 5시즌 연속으로 100타점을 기록하며 이대호(전 롯데), 박병호(KT)와 함께 이 부문 최다 연속 기록을 갖고 있다.

또한 118타점을 기록한 2011년과 144타점을 올린 2016년에는 해당 부문 타이틀을 획득했다.

특히 2016년 기록한 144타점은 KBO 리그 역대 단일 시즌 타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2017년 생애 첫 FA 자격을 얻어 KBO리그 최초 '100억원 대 계약'을 맺고 KIA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베테랑의 투혼을 발휘하며,

녹슬지 않는 타점 생산 능력으로 마침내 전인미답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김종국 감독은 대기록을 달성한 최형우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최형우는 밝은 표정으로 꽃을 안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박희중기자

23일 트로트 가수 정다한·24일 '블리처스' 루탄

KIA, 찐팬 릴레이 승리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3-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 '찐팬' 연예인을 연속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23일에는 광주 출신의 트로트 가수 정다한이 시구자로 초대된다. 정다한은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나온 아이 '엄니'를 불러 화제가 됐다.

정다한은 "고향 팀인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다. 이날 경기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 전에는 정다한의 특별 공연이 준비돼 있다.

24일에는 보이그룹 '블리처스'의 멤버 루탄이 시구자로 나선다.

이날 클리닝 타임엔 응원단상에서 시타는 블리처스의 멤버 크리스가 한다. /박희중기자



트로트 가수 정다한(왼쪽)과 보이그룹 블리처스 멤버 루탄. (제이엔터테인먼트-우즈엔터테인먼트 제공)

루탄은 "은 가족이 KIA 타이거즈의 팬이다. 이렇게 응원팀인 KIA 타이거즈 경기의 시구를 하게 돼 기쁜 영광"이라며 "선수들에게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클리닝 타임엔 응원단상에서 시타는 블리처스의 멤버 크리스가 한다. /박희중기자



광주FC 허을, 정지훈과 구단 대학생 마케터인 '엘리트' 회원들이 '해뜨는 식당'에서 일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주인공 장윤경씨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허을·정지훈 '해뜨는 식당' 일일아르바이트

'천원의 행복' 나눔 동참 훈훈

프로축구 광주FC가 광주 시민과 함께 '천원의 행복'을 누렸다.

광주는 20일 "광주FC 허을과 정지훈이 지난 16일 대인시장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민들과 가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뜨는 식당'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과 인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단돈 1천원에 제공하는 착한 식당이다.

2010년故 김선자씨가 개업해 2015년부터 딸 김윤경(61)씨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에 광주FC가 나섰다.

1일 아르바이트를 자청한 허을과 정지훈은 구단 대학생 마케터인 '엘리트'

1기와 함께 양파와 마늘, 무 등 식재료 손질은 물론, 앞치마를 메고 서빙과 청소까지 진행하는 등 '고급 인력(?)'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윤경씨는 "프로 선수들이 직접 많은 일을 도와주고 손님들께 친절함을 베푸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시민구단 광주에서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만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를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을은 "천원이라는 돈으로 많은 분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그 행복의 현장을 직접 보니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었다"며 "공정적인 기원과 함께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말씀과 응원을 해주신 만큼 더 멋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한국, U-17 아시안컵 8강 확정

21년만의 우승 도전 '순항'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지난 19일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4-0으로 완승했다.

16일 1차전에서 카타르를 6-1로 꺾은 데 이어 2연승으로 승점 6을 쌓은 한국은 B조 선두에 올랐다.

이어 열린 B조의 다른 경기에서 이

란과 카타르가 0-0으로 비기면서 이란이 승점 4로 조 2위, 카타르가 승점 1로 조 3위에 자리해 한국은 남은 조별리그 최종 3차전 결과와 관계 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 8강행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엔 16개국이 출전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2개국이 8강에 진출, 결승까지 단판 승부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은 상위 4개국에 주어지는 11월 예정된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권과 함께 2002년 이후 21년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 PBA 첫 데뷔투어 우승



우승 트로피를 번쩍든 세이기너 <PBA 제공>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3쿠션과 예슬구 무대를 누볐던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튀르키예·휴온스)가 프로 당구 PBA 데뷔전부터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세이기너는 지난 19일 열린 2023-2024 경주 블루원리조트 대외 PBA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세트 점수 4-0(15-5 15-0 15-12 15-5)으로 이기고 우승 상금 1억 원을 거머쥐었다.

2019년 출범한 PBA에서 데뷔전부터 우승한 선수는 세이기너가 최초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PBA에 데뷔했을 때 적응기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세이기너는 곧바로 우승컵을 차지해 돌풍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단체추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나윤서(가운데)와 여자부 주니어 선수들 <대한자전거연맹 제공>

전남미용고 나윤서, 亞Jr선수권 3관왕

경륜·스프린트·단체추발 '金'...단체스프린트·500m 독주 '銀'

우리나라 사이클 여자부 대표 유망주로 꼽히는 나윤서(전남미용고)가 20일 23트랙사이클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20일 대한자전거연맹에 따르면 나윤서는 지난 14-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3

개를 목에 걸었다.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1위를 차지한 나윤서는 단체추발에서 권나혜(경북체고)·김도예(인천체고)·구민지(대구체고)·박경령(영주고)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나윤서는 김도경, 구민지, 김도예와

함께 나선 단체스프린트에서는 아쉽게 2위에 그쳤다. 500m 독주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권나혜도 박경령과 호흡을 맞춘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수확해 2관왕을 달성했다. 권나혜는 옴니엄과 스크래치에서 은메달 2개도 챙겼다.

박경령도 포인트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사우디, 손흥민에 연봉 421억원 제안"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축구 스타들을 모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도 연봉 4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 매체 ESPN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천만유로(약 421억원)씩 받은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우디 측은 손흥민이 알이티하드로 합류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알이티하드는 손흥민의 이적을 위해 6천만 유로(약 842억원)에 보너스까지 준

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알이티하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카림 벤제마가 이적한 팀으로, 2022-2023시즌 리그 우승을 일궜다. 앞서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토트넘과 25년까지 계약된 손흥민이 2024년 여름 사우디로 갈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